

# 전주 효천지구 새아파트 '관심 집중'

〈유미린〉

## 노후 주택 비율 높음에 비례해 교통 등 인프라 갖춰 수요자 반응 높아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은 전주 효천지구지역에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이주 수요는 충분한 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들 지역은 주택의 노후화에 비례해 교통, 편의시설 등 해당 지역의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노후 주택 비율은 70.95%로 높은 편이며, 특히 호남지역(광주 67.33%, 제주 65.1%)의 노후 주택 비율이 두드러졌

다.

현재 전국 아파트 858만7761가구(임대 제외) 중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524만8086가구로 전국 평균 노후 주택 비율은 61.11%(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후 아파트 비율이 65%를 넘어가는 지역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높아 높은 청약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북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지난해 8월 분양된 '에코시티 더샵 2차'로 566가구 모집에 1만883명이 몰리며 19.2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가 분양된 전주시의 노후 주택 비율

은 70.11%로 전국 평균 노후 주택 비율인 61.11%를 훌쩍 넘었다.

또한 169가구 모집에 8281명이 몰리며 49대 1이러는 지난해 광주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광주 호반 써밋플레이스'는 광주에서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서구(77.88%)에서 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새 아파트에 대한 높은 기대수요로 인해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올해도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어 이들 지역의 신규분양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아파트 중 노후 아파트의 비율

이 70.11%에 달하는 전주에서는 오는 3월 우미건설이 효천지구의 첫 분양 물량인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구내 수변공원을 비롯해 새롭게 조성되는 상업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를 포함해 단지 주변에 초,중,고교 12곳이 밀집해 있다.

효천지구는 기존 전주 도심과도 가까운 홈플러스, CGV 멀티플렉스, 농수산물 유통시장, 완산수영장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입주한지 15년이 지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아 가격 안정성 및 시세 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농협사료, 환절기 품질보장 서비스 실시

기존 사료에 면역력 증강제·생균제·비타민 추가 보강

최근 지속되는 큰 일교차에 구제역 백신 접종까지 겹쳐 가축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농협사료 전북지사는 이달부터 2개월에 걸쳐 '환절기 품질보장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하는 품질보장서비스는 중소기축의 폐사 및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료에 면역력 증강제와 생균제, 비타민을 추가 보강한다.

면역력 증강제는 간기능 개선물질(타우린 등)과 면역력 증강과 연관 있는 항산화물질 및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균제는

반추위 미생물 증식과 대사활동을 도와주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다.

또한, 비타민 C, E의 경우 소의 체내에서 항산화작용을 통해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며, 환절기의 심한 일교차로 인해 비타민 소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핍증을 예방한다.

한편 농협사료는 환절기·하절기 등 가축이 예민해져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품질보장서비스를 꾸준히 실시해왔으며, 그 효능이 입증되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인재용 기자

## 국내개발 신제품·신기술 이해 교육 강화

### 농진청, 보급현황 정보 제공·판매 활성화 위해 협력 강화

농촌진흥청은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전국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경매사를 대상으로 '국내개발 신제품·신기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도매시장과 공판장은 국내에서 생산한 채소·과일의 약 60%가 유통되며 유통·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신제품 농산물이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아 시장에 출하했을 때 농가가 기대하는 수준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농가는 초기의 낮은 가격 수준을 버티지 못하고 재배를 포기하거나 상품

중임을 알리지 않고 출하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보급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번 교육은 도매시장의 경매사들에게 국내에서 개발한 신제품·신기술 및 보급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에선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신제품 정보와 최근 소비경향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차별화 방안, 과일류 생산기술 및 수확 후 관리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다.

국산 신제품 정보에 관한 교육 1회(3월 16일~17일)는 사과,배,포도,참다

래 작목으로 진행했고, 2회(4월 6일~7일)는 딸기·감귤·플로코트·복숭아 작목으로 예정됐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과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매사의 산지 지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14년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교육도 협력사업의 하나로 4년째 진행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앞으로 경매사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신제품·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등 도매시장 종사자와 꾸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전북중기협동조합 임선명 협의회장 선출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1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7대 협의회장으로 전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임선명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임선명 신임회장은 콘크리트 제조업체인 (유)중립산업을 경영해왔으며 2008년부터 전북콘크리트조합 이사장을 맡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 콘크리트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임 임선명 협의회장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현안 해결에 매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소외된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농협-하서농협, 농기계 점검·수리 순회봉사

전북농협과 하서농협은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부안군 하서농협 관내 농업인이 보유한 농기계와 영농장비를 점검 및 수리 순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서 하서농협 관내 농가의 수리가 필요한 약 100여 대의 농기계 및 영농장비에 대해 무상 수리와 실비 부품교환 등으로 농업인에게 약 2천여만원의 수리비와 부품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업경영을 밝혔다.

비 점검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했다.

전북농협의 농기계 수리봉사는 농협의 농기계 기술자협의회 회원 30명과 농기계 생산업체 정비요원 10명, 35사단 장비 10명, 하서농협 임직원 10명 등 총 60여명이 합동으로 농기계 수리반을 편성해 고장 나고 노후 된 농기계를 수리하고 장비를 점검해 줌으로써 농민기를 앞둔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재용 기자

### LH전북, 주택건설공사·주거복지사업 2330억원 투자

LH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공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2,330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LH 전북본부는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공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2,3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각 부문별로는 군산신역세권 등 10개 지구에서 토지 등 비용비로 112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 전주 효천, 완주삼봉지구 등 단지개발 조성비에 828억원이 투입된다.

그리고 전주만성지구 A1블록(전용

59㎡) 분양주택건설과 익산인화 행복주택 건설 등에 801억원을 각각 투입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LH 전북본부가 보유·관리중인 임대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의 시설보수와 관리에 약 230억원을 투자하고, 약 270억원을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인 다가구주택 매입비로 집행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한편, LH 전북본부의 올해 토지 및 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200억원, 완주삼봉지구에서 214억원 등 총 1,567억원 상당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주택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10년 공공임대리츠(전용 74㎡, 84㎡) 818호와 전주반월2지구에서 국민·영구임대주택 842호를 하반기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가구 임대주택은 360호, 전세임대주택은 985호를 공급하고, 20일부터 계약체결 예정인 익산인화지구 행복주택(612호)은 미계약체대를 대상으로 4월경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소재 재산 약 41억원 규모, 총 41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남원시 죽향동 소재 근린생활시설과 익산시 중앙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부안군 백산면 소재 공장 등이 있다.

공매 참여 시 입찰차 현황 등 관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v.or.kr \*전자우편 : jvsv@hanmail.net